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 www.hansungnews.com |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제572호

지면안내

02 보도 제2차 대의원총회서 학생회칙 대거 개정

03 보도기획 총학 레이스의 '휘슬'은 울렸다

05 사람人 호기심 많은 관찰자, 작가 임홍택

08 기획 코로나19가 남긴 헌혈의 빈자리

총선거, 사상 첫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총학, 3년 만에 3개 선본 출범
'제1대 미플대 학생회' 신설돼
트랙·학과(부) 학생회 투표 병행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이하 총선거) 투표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총학생회는 3개의 선거운동본부(선본)가 출범했으며,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미래플러스대학은 단독 선거다. 이외의 ▲동아리연합회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상상력교양대학은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다. 선본이 출범하지 않은 학생자치기구는 이듬해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9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선거 유세가 실시된다. 선거 유세는 온·오프라인 모두 이뤄진다. 각 기구의 선거 운동 영상이 e-class 커뮤니티(이하 e-class)에 업로드되며, 작년과 달리 교수 재량에 따라 강의실 유세도 시행된다.

15일과 16일에는 미래관 DLC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정책토론회에서는 후보자별 공약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학생들은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15일에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후보자가, 16일에는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미래플러스대학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석한다. 본 토론회의 녹화 영상은 추후 e-class에 공개될 계획이다.

이번 총선거에는 제1대 미래플러스대학 학생회 투표가 진행된다. 트랙·학과(부) 학생회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각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며, 총선거와 함께 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학생은 같은 날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온·오프라인 투표는 모두 9시부터 23시까지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26일인 예비일로 진행될 경우, 9시부터 18시까지 투표가 이뤄진 후 19시부터 개표가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는 추후 e-class와 공지 문자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투표는 '미래관 앞' 1개소만이 운영될 계획이다.

차원식(스마트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총선거는 온·오프라인 병행을 기획하는 등 후보자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3년 만에 경선으로 진행될 제37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근본', 'BASE', '성심'을 인터뷰했다.

》 3면에 계속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제2차 대의원총회서 학생회칙 대거 개정

지난 5일 상상관 203호에서 '2021학년도 제2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학생회칙 개정'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감사 시행 세칙(이하 감사세칙) 개정, 선거 시행 세칙(이하 선거세칙) 개정, 학생회칙 개정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재적 대의원 35명 중 총 28명이 참석했고 모든 내용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날 개정된 학생회칙은 11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와 '21년도 하반기 감사'에 모두 적용된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학생회칙(2021)' 내 신설된 별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학생회칙은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사세칙 개정의 주요 내용

- 일상운영비 과다 지출 규제
- 감사 시정 요구 횟수 한정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자치기구의 일상운영비(이하 운영비) 과다 지출 규제 방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운영비 사용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생자치기구의 불필요한 운영비 지출을 규제할 수 없던 점이 보완됐다. 차원식(스마트 4) 총대의장은 "학생회에서 휴지를 100개씩 구매하거나 뜬금없이 식탁보를 구매하더라도 규제가 불가능했다. 본 조항의 마련으로 수월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세칙 제26조 3항도 신설됐다. 본 조항은 '시정 요구 횟수는 최대 2회로 정한다. 2회 초과 시 중앙 감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차 의장은 "예산 인준 과정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학생회가 수정사항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총대의원회(이하 총대)에서 관리하는 안건이 방대한 만큼 수정사항이 많아지게 되면, 감사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세칙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징계 사항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선거세칙 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선거 관련 내용 명시
- 학내 상황 반영 및 명료화
- 용어 삭제 및 수정

선거세칙 제65조 '온라인 투표'가 신설됐다. 기존 세칙에는 온라인 투표 관련 조항이 부재했다. 선거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온라인 투표 절차, 신분 확인, 온라인 투표 시작·마감 시 투표율 안내' 등을 포함한 조항이 마련됐다. '온라인 유세 영상' 업로드 규정도 정해졌다. 선거세칙 제38조 1항에 '단, 오프라인 선거 유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선거 유세 영상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명시돼 있지 않던 기준이나 학내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보완되거나 삭제됐다. 기존 선거세칙 제48조 4항은 '선거운동본부복(이하 본부복)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소속만이 착용할 수 있다'였지만, '유세 시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해 착용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외부에서 선거운동본부실(이하 선본실)을 볼 수 없도록 가려야 한다'는 제27조 7항은 삭제됐다. 선본실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가릴 수 없는 현 상황이 반영됐다. 이어 제27조 6항은 '선본은 제7장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였지만, '선거시행세칙 제7장'으로 세칙 내용이 구체화됐다.

중복 혹은 혼용된 용어도 바로잡았다. 기존 선거세칙 제4조에는 '총학생회(이하 총학), 중운위, 확대운영위원회, 대의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총학은 중운위에 포함돼 삭제됐다. 또한, 선거세칙 제36조 4항에 명시된 '사임'을 '사퇴'로 수정했다. 이어 입후보자는 당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39조 3항의 '정·부학생회장'이 '정·부 후보자'로 수정됐다.

잘못 서술된 문장은 정정됐다. 기존 제33조 3항 '참관인은' 표현을 '참관인이'로 수정했다. 기존에 '선본'이라고 명시된 줄임말 역시 '선거운동본부'라는 공식 명칭으로 변경됐다.

학생회칙 개정의 주요 내용

- 과 학생회 체제 폐지 및 명칭 변경
- 업무 및 권한 설명 추가
- 대의원 학년 기준 개정
- 용어 삭제 및 수정

본교가 트랙제로 운영됨에 따라 '과 학생회' 체제가 폐지됐으며, '과 학생회장' 표기 역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 명칭이 수정되거나 새롭게 추가되기도 했다. 학생회칙 내 '트랙장' 표기는 모두 '트랙 학생회장'으로 변경됐으며, '과'의 내용은 '학과(부)'로 수정됐다. 단, ▲무용과 ▲회화과 ▲ICT디자인학부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의 경우, 과 학생회 체제로 운영돼 '학과(부) 학생회장'과 '학과(부) 부학생회장' 명칭이 유지될 예정이다. 차 의장은 "16학번으로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이 트랙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 학생회장 체제를 폐지했다"고 전했다.

단과대학 학생회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의 업무 및 권한 조항에는 각 부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됐다. 차 의장은 "기존 학생회칙에는 총학과 총대의 업무 및 권한에 부서에 대한 설명이 명시돼 있는 반면,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복위의 업무 및 권한의 설명은 부재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1월 5일 '2021학년도 하반기 제2차 대의원총회'가 상상관 203호에서 진행됐다.

대의원 학년에 대한 기준도 제시됐다. 학생회칙 제3장 17조에는 '전체 트랙의 학년별 대표 1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디자인대학 소속 학생을 제외한 1학년의 경우, 소속된 트랙이 없어 '단, 트랙 대의원 1학년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용되지 않는 용어 역시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제23조 10항의 '9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앙 자치단체의 회장 및 위원장 탄핵권'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중앙자치단체' 표기가 지워졌다. 이어 제61조에 적혀있는 '파생된 트랙'에서 '파생된'이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차 의장은 "기존의 학과에서 트랙이 파생됐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트랙이 기존의 학과와 동일하게 독립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선거와 관한 조항은 삭제됐다. 학생회칙 제10조 3장 '총회 소집 또는 총투표의 실시 여부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며, 총투표의 관리는 상임위원회, 중앙위원회, 과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가 지워졌다. 차 의장은 "총회와 선거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잘못된 표기도 바로잡았다. 제75조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한다'에서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지워졌다. 차 의장은 "현재는 학생회 운영에 지출되는 비용을 '학생회비'로 표현해 해당 단어를 지웠다"고 말했다.

총학 집행국 운영에 관한 조항도 수정됐다. 학생회칙 제46조 5항에는 '집행국의 각 국장, 차장을 해임하고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새로 임명'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는 총학 집행국이 국장 직책으로만 운영돼 '차장'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또한, 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국장 임명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라는 문구도 사라졌다.

통일이 필요한 조항이 개정되기도 했다. 학생회칙 제51조 총대 구성 조항에서는 총대 부서의 순서가 '감사국, 정책국, 사무국, 홍보국, 기획국, 운영국'으로 표기돼 있지만, 제54조 업무 및 권한에는 '감사국, 사무국, 정책국, 홍보국, 기획국, 운영국' 순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를 제54조에 맞춰 통일했다.

학복위 업무 및 권한 조항에는 '기획국'과 '연대국'이 추가됐다. 기존 학생회칙에는 '정책국, 총무국, 홍보국, 운영국' 4개의 국으로 적혀 있지만, 현재는 6개국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대면수업 확대

PCR 결과 유효기간 연장
기말고사 시행방안 확정
학생활동공간 일부 개방

지난 2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대면수업 확대 및 기말고사 시행 안내'가 발표됐다. 본교는 실험·실습·실기 외 이론수업도 대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2주차부터는 이론 과목의 대면수업이 일부 허용된다. 본교는 일별 총 등교 인원 3,000명을 고려해 제한적대면수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과목은 대면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용훈(학사운영팀) 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념이 흐릿해진 상태라고 판단했다. 신청된 이론수업은 대부분 승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유효기간 기준이 변경됐다.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은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 PCR검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접종 완료 당일 이후부터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PCR 검사 결과 유효기간 역시 하루에서 3일로 연장됐다.

기말고사 대면·비대면 여부는 강좌별 교수의 재량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대면시험으로 승인된 과목에 대면시험 참여는 원칙으로 적용돼 불가피하다.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시험을 대체할 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지난 8일 이후 ▲동아리실 ▲체육관 ▲풋살장 ▲여학생 휴게실 등의 학생활동공간도 일부 개방됐다. 백신접종 완료자와 최대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받은 학생에 한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9주차 즈음 배부된 대면수업 동의서에 일부 학생은 대면수업을 강요받았다고 전했으며, 익명의 제보자는 "대면수업을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님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학교에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본부는 동의서가 대면수업 진행에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동의서는 학생들의 대면수업 참여 수요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교수가 대체수업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jizhejy@naver.com

hansungnews

한성대신문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2021 재학생 트랙설명회' 진행

오는 15일부터 트랙설명회(이하 설명회)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설명회는 22일부터 시작될 '2022학년도 1학기 트랙선택 기간'에 앞서, 트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오프라인 설명회는 오는 19일 사전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신청은 15일부터 17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며, 트랙별 설명회 장소는 해당 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신청할 수 있는 설명회는 최대 4개다. 사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참여는 가능하나 신청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만약 정해진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전신청 학생 내에서도 선착순으로 인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한 트랙당 4번 진행되는 오프라인 설명회는 각 20명 내외의 학생이 참여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의 음성 확인서' 혹은 '자가진단키트의 사용'이 요구된다. 하나의 설명회에 참여하면 비교과 포인트 5pt가 제공되고 최대 20pt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e-class를 통해 시행된다. 트랙별 가이드는 녹화 영상·PPT·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단과대학별 트랙 가이드 영상 등을 시청하면 비교과 포인트 5pt가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0pt까지 수령 가능하다.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기회를 주고자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영어 독후감대회' 개최

영자신문사에서 오는 11월 27일까지 '제1회 한성 교내 영어 독후감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회 주제는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책을 읽은 후 영어로 독후감을 작성해야 한다.

본교 재·휴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지원자는 참가지원서와 원고 파일을 모두 첨부해 접수해야 한다. 책은 국문과 영문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지만, 만화나 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은 ▲최우수상(1명) 30만 원 ▲우수상(1명) 20만 원 ▲장려상(2명) 10만 원으로 이뤄진다. 순위에 따라 비교과 포인트 40pt, 30pt, 20pt가 차등 지급되며, 본선 진출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만 원이 주어진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에게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제공된다. 시상 결과는 12월 10일 본교 홈페이지와 합격자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대회를 개최한 영자신문사 임채은(인문 2) 편집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이후, 대면으로 진행되던 영어 스피치 대회를 주최하지 못해 이번 대회를 기획하게 됐다. 학우들의 영어 학습을 장려하고 영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총학 레이스의 '휘슬'은 울렸다

기호 1번 '근본'

제37대 총학생회 선거 기호 1번, 근본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총학생회장 후보 현현준(인문 3)과 부총학생회장 후보 김은기(기계 3)를 만났다. 근본은 ▲트랙 구조조정 기준 재정비 ▲총장 직선제 ▲제휴서비스 수요조사 ▲시설물 모니터링 및 정상화 ▲학생 정책 참여 공모전 ▲행사 평가서 ▲정책 승계제도 ▲찾아가는 한성 간담회 등의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Q. 제37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궁금하다.

A.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 학생의 복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근본적으로 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다. 총학생회는 무엇보다 학생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학생과 소통하고 싶다.

Q. 근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약이 무엇인가?

A. 하나를 뽑자면 '정책 승계제도'의 도입이다. 이번 선거 공약으로 가져온 '총장 직선제'를 예로 들자면, 1년이라는 짧은 임기동안 어떤 결과를 이뤄내기란 쉽지 않다. 선거마다 같은 공약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 인수인계를 체계화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약의 토대를 만들어놓고 살을 붙여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선거 공약 중 대면 체제 확대와 관련한 공약이 있다면?

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부터 누리던 복지나 교내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한 점이 학우들이 가장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다. 대학 본부의 '대면수업 확대' 방안에 따라 교내 시설물을 정상화시키고, 시설물 이용 시 방역 수칙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행사가 마무리되면 학생에게 평가서를 배포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Q. 현재 대학 본부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총장 직선제다. 총장은 학교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지도자다. 다수의 학생이 총장 직선제는 학생의 투표가 100% 반영된다고 오해하지만, 타 대학 사례를 보면 보통 3~5% 정도가 반영된다. 그래도 학생이 최소한 어떤 사람이 다음 총장으로 오는지, 그의 약력이나 학생을 위한 공약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궁극적으로 민주적인 대학이 되려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학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총학생회장 한 사람이 아닌 모든 학생이다. 학생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칭찬은 감사하게 받아 원동력으로 삼겠다. 학생 대표로서, 한성대학교의 총학생회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기호 2번 'BASE'

제37대 총학생회 선거 기호 2번, BASE 선본의 총학생회장 후보 지승빈(IT 3)과 부총학생회장 후보 백혜린(스마트 3)을 만났다. BASE의 공약은 ▲소통 ▲복지 ▲제휴 및 취업 ▲장학금 ▲교육 ▲문화 등 6개 분야 중 '온라인 익명 건의함 설치', '만족스러운 학식당 이용',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휴 업체 선정' 등을 포함한 총 14개다.

Q. 제37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궁금하다.

A. 등록금 책정 기준이나 재개발 공사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 등 이미 학생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안을 개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학생 복지에 힘쓰고자 출마하게 됐다. 소통을 지향하는 총학생회가 되어 학교를 이끌어 나가고 싶다.

Q. BASE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약이 무엇인가?

A.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이다. 여러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업로드할 계획이다. 또 ▲중고서적 게시판 ▲진로 및 취업 월간지 게시판 ▲카드뉴스 게시판 등 다양한 게시판을 개설해 학생이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생과 원활히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선거 공약 중 대면 체제 확대와 관련한 공약이 있다면?

A. 캠퍼스 생활을 꿈꾸며 입학한 20·21학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을 처음 겪어본 학생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통제된 생활에 지쳤던 만큼 이제는 많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발맞춰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에 유의하며 대면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Q. 현재 대학 본부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본교의 트랙제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트랙 쏠림 현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일부 트랙의 경우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인원이 많은 트랙은 학생이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트랙제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부는 학생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올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일상을 누리지 못했다. 그동안 모두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없던 시절처럼 학생들이 보람차고 값진 대학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다. BASE는 그 기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기호 3번 '성심'

제37대 총학생회 선거 기호 3번, 성심 선본의 총학생회장 후보 이재성(인문 3)과 부총학생회장 후보 심우호(컴공 3) 후보를 만났다. 성심의 주요 공약은 ▲등록금 반환 공개 ▲에브리타임 적극 대응 ▲위드 코로나 대비 간담회 ▲재수강 학점 제한 완화 ▲한성대생 제휴 확대 ▲학생증 체크카드 연동 등 총 6개로 이뤄져 있다.

Q. 제37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궁금하다.

A. 학생이 건의하거나 나서서 이야기 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학생이 원하는 바를 직접 발 벗고 찾아 나서는 학생회가 되고 싶다. 무엇보다도 변화를 만들어낼 생각이다. 20·21학번 학생이 학교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 또한, 학생이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Q. 성심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약이 무엇인가?

A. '에브리타임 적극 대응'이다. 지난해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정학생회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에게 질문을 받았다. 그중에는 양질의 의견을 제시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의 목소리를 폭넓게 포용하는 학생회가 되고자 한다. 성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이라는 가치와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Q. 선거 공약 중 대면 체제 확대와 관련한 공약이 있다면?

A. 대동제, MT, 새내기 배움터 등 다양한 대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은 대학에 입학해 공부만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사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학교 행사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돼 많은 학생이 아쉬움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당선이 된다면, 행사의 다양화와 함께 규모도 키워서 추진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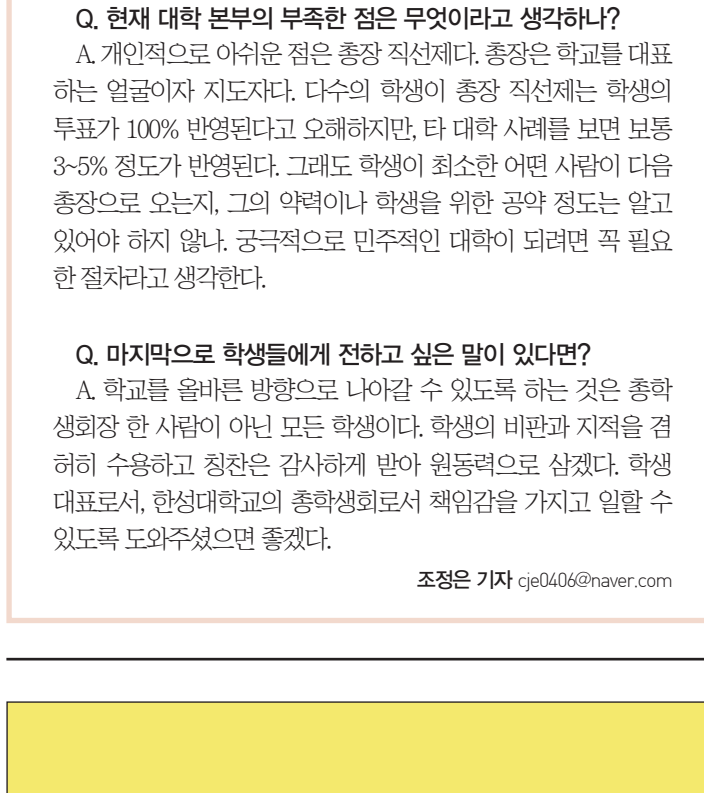
Q. 현재 대학 본부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거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등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대비할 수 있도록 빠르고 명확한 공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바뀌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급히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어쩔 수 없었지만 아쉬움은 있었다. 당선된다면 학생에게 정보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본부와 학생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자긍심을 가진 채 한성대학교에 입학했고, 그만큼 학교에 관심이 많았다. 학생과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일을 하고 싶다. 부족함 없는, 활발한 소통으로 학생의 의견을 듣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한성대신문 SNS 팔로우 이벤트

기 간 11월 30일(화)까지

참여대상 모든 학내 구성원

참여혜택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5명)'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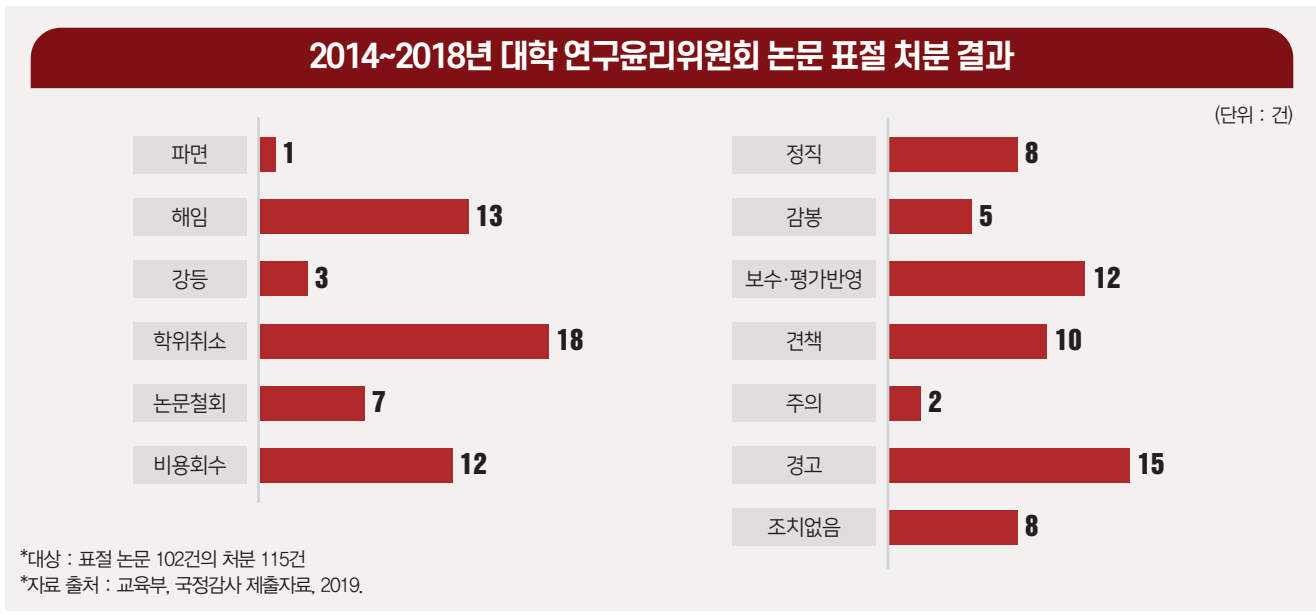
참여방법
1. 인스타그램에서 한성대신문사 @hansungnews를 팔로우한다.
2. 팔로우가 되어있는 화면을 캡처한다.
3. 카카오톡에서 한성대신문사 채널을 추가한다.
4. 카카오톡 메시지로 캡처본과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전송한다.

문 의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신혜림 편집국장 010-8572-0334
카카오톡 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 팔로우 취소 및 채널 차단 시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 인스타그램 아이디 변경 시 상품 지급이 어렵습니다.

표절로 얼룩진 논문

표절 판단할 객관적 지표 부재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이 필요
논문 표절에 따른 처벌도 약해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해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하지만 대학사회의 오랜 문제 중 하나인 '논문 표절'은 지식을 복제 수준에 머물게 한다. 최근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가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문 표절, 나아가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잊을만하면 떠오르는 대학가 부정행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 제12조에 따르면 표절은 부당한 저자 표시 등과 함께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 지식'과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라는 표절의 설명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각 학계는 연구윤리지침을 바탕으로 연구에 알맞은 기준을 설정해 표절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학계마다 표절을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 '표절을 판단할 객관적 지표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20년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수준 조사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추진할 정책으로 '학문 분야별 연구부정행위 정의(표절, 위변조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32.8%가 '매우 중요함', 46.3%가 '중요한 편임'이라고 답했다.

표절이 인정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징계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이하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 동안 논문 표절이 적발된 102명 중 17명이 징계시효가 지나 주의 혹은 경고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8명에게는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가 신설되면서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지만, 여전히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강명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의 표절 여부는 시간이 지난 후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계시효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시효가 필요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성호(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절에 대한 제보가 이뤄졌을 때, 실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학계는 표절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99개 대학에서 열린 382개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총 128건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접수됐다. 이중 102건이 표절로 인정됐으며, ▲파면 1건 ▲해임 13건 ▲강등 3건 ▲학위취소 18건 ▲논문철회 7건 ▲비용회수 12건 ▲정직 8건 ▲감봉 5건 ▲보수·평가 반영 12건 ▲견책 10건 등을 포함해 총 115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한 건당 다수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정태석(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는 "부정행위자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면 논문 표절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은성(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악의적인 논문 표절 사례에는 강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는 논문 표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카피킬러'와 '턴잇인' 등의 논문 유사도 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76개 중 '논문 유사도 검증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은 46개다. 정태석 교수는 "단순하게 권고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유사도 검증 결과 첨부 혹은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논문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함도 지적됐다. 석·박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논문을 작성할 때, 일부 대학원생이 논문을 표절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도교수가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강 교수는 "만약 교수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논문을 표절한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담당 교수에게도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표절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 교수는 "단순히 연구윤리를 지키라는 교육보다는 표절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뤄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기자 kimgihun30@gmail.com

허울 좋은 '반값등록금'

학생 "실질적인 '반값' 돼야"
대학 "재정 위기 해결 우선"

지난 8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특별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의 분야로 나눠졌으며, 총 87개의 과제가 논의됐다. 그 중 '교육' 분야에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반값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학의 부족한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반값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일정 금액을 우선감면 받거나 후지급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지난 해보다 7,000억 원 증가한 총 4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수혜자는 소득분위 8구간에 속하는 학생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나온 반값등록금 확대에 대해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반값등록금 확대였지만, 그동안 실질적 움직임이 미비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정경희(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국가장학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장학금 총액은 3조 5,861억 원으로 약 188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작년에는 174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으며, 총액은 3조 4,405억 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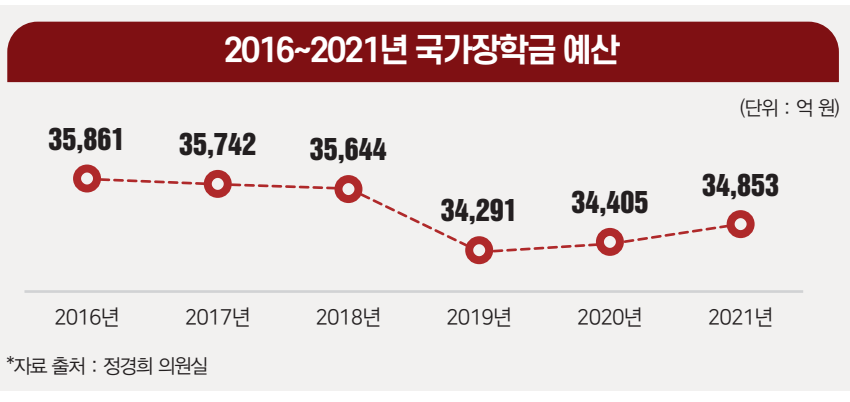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차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야 국가장학금 예산이 증액돼 이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영철(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가 2017년에 집권한 뒤 국가장학금 예산을 거의 늘리지 않았다. 정부가 반값등록금 확대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올해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83.9%가 대학 등록금이 '고가'라고 응답했다. '반값등록금이 10여 년전부터 시행됐지만 등록금은 여전히 비싸다'며, '이번 제도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은(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많은 학생·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실현돼야 한다는 말이다. 실질적 반값등록금이란 모든 학생의 등록금 자체가 절반가량 줄어듦을 의미한다. 이주원(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현 정부가 발표한 반값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의 실현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지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대학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학의 재정위기를 외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13년째 등록금을 동결시킨 상황에서 여전히 반값등록금 확대 제도만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 당시 등록금 인상 규제에 대한 법규를 마련해 대학의 등록금을 동결·인하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11항에는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등록금 동결·인하로 재정이 부족해진 대학은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교육공간 확보가 어려워졌으며, 건물 개보수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다. 교육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전국의 폐교된 학교는 총 3,834개다. 김 교수는 "정부는 국가장학금 증액뿐만 아니라 대학에 직접 투입하는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한기자와 함께하는 시사한잔

'빈칸'으로 끝나버린 퇴직 법관 탄핵심판

지난 10월 28일 헌정사 최초의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마무리됐다. 임성근 전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지난 2월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 있다. 이어 국회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라는 결과를 받았다. 각하는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정부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과 동시에 상급 법관 등 내부 영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임 전 판사는 3건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추측한 칼럼을 써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탄핵심판으로 얻게 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 전 판사는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본안판단을 거쳐도 파면 결정이 선고될 수 없다. 탄핵소추된 당시 법관에 재직 중이었던 임 전 판사는 탄핵심판이 진행된 시점에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태였다.

탄핵심판이 각하되면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탄핵소추된 임기만료 공직자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의 이미선 재판관도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판단도 없이 탄핵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유지하는 탄핵심판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국회의원은 탄핵심판 도중 공무원의 신분을 잃더라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변호사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5년간 변호사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임 전 판사는 전관 변호사와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김선택(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단언했지만 공직과 변호사 개업을 막는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었다"며 "파면 외의 다른 실익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법관을 즉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호기심 많은 관찰자, 작가 임홍택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에게 화가 난다',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놓고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한다', '윗사람의 말에는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회사 생활의 지혜다'. 다음 중 동의하는 문항이 존재하는가? 하나 이상 동의한다면 당신은 '꼰대'다. 『90년생이 온다』의 꼰대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그렇다. 책을 통해 세대의 특징을 분석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한 그는 임홍택(39) 작가다.

과거 그는 작가라는 직업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었다. 글쓰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 되기를 희망했던 과거의 임 작가는 오래도록 직장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작성해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 경험을 책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임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책을 작성했다. 『90년생이 온다』는 그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90년생과 기성세대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다.

"과거 신입사원을 교육했던 적이 있어요. 대부분 90년생이었는데 기성세대와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이었죠. 그들의 간극을 책에 담고 싶었어요."

직장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함께 생활한 그는 90년생과 기성세대가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90년생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기성세대와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 살아왔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 작가는 그가 관찰한 결과 90년생을 '간단', '재미', '정직' 세 가지 단어로 정의했다.

임 작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살아온 90년생은 '간단'을 추구한다. 그들은 원하는 제품을 밤에 주문해도 새벽에 받아볼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빠르게 알아낸다.

"90년생은 다양한 기술이 발달된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온 90년생은 기다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간단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죠."

모든 상황에서 '재미'를 찾는 것도 90년생의 특징이다. 여가생활은 물론 회사에서까지 재밌게 일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90년생이 회의에서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문제 상황을 재치 있게 해결해 나간다고 말한다.

"90년생은 기존 기성세대가 채우지 못하는 지식과 경험을 말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내면서 재미있기까지 하죠. 과거의 기성세대가 회사에서 상사 눈치를 보느라 급급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에요."

▲임홍택 작가가 '글로벌인재포럼 2019'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임홍택 작가는 '전국빨간차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임홍택 작가가 집필한 책 3권.

마지막으로 90년생은 '정직'을 추구하는 세대다. 차에 달린 블랙박스, 카메라가 발달된 핸드폰 등 투명한 시스템이 잘 갖춰진 환경이 90년생을 정직하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길거리 경범죄가 많았어요. 지금은 범죄가 일어나도 대부분 적발되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90년생은 정직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90년생의 특징을 담아 쓴 『90년생이 온다』로 임 작가는 유명인사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그의 책을 선물한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발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책을 주문하는 사람이 급격히 많아졌고 『90년생이 온다』와 '임홍택'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했던 바람은 이루게 됐지만, 예상과 달리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책뿐만 아니라 작가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이 화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명세와 함께 임 작가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각종 매체에서는 그를 섭외하기 바빴고, 하루에 수십 통씩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찍혔다. 주변 사람들이 모르던 작가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인은 그를 질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악플이 달리기도 했고 길에서 사인을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다.

"책에 대한 관심은 감사하지만, 당시 상황은 아주 부담스러웠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 책을 쓴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냥 제가 알고 싶고 알리고 싶은 내용을 쓴 것뿐이었어요."

>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멈추지 마세요.
> 조금이라도 나아가야 완성에 가까워져요."

그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지인과 밥을 먹을 때, 카페를 갈 때 등 일상 대화에서 그는 늘 질문한다. 임 작가의 책은 주변인들과의 대화로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구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물어봐요. '우리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혼밥을 왜 할까?' '휴대폰이 사라지면 어떨 거 같아?' 이런 식이죠. 대화를 통해 의구심을 해결하는 편이에요."

그가 책을 한 권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년 남짓. 오직 글만 쓰는데 1년이다. 자료조사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까지 구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작가로서 성공만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2011년 처음 출판된 '포스퀘어 스토리(소셜미디어를 넘어 위치기반 플랫폼으로)'는 서점 진열대에서 발견할 수조차 없었다.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는 다음 책을 계약할 출판사가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책이 일정 판매 부수를 넘기지 못하면 다음 책을 출판하고자 할 때 계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책을 다 써놓고 출판을 하지 못해 다른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불안했어요."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바빠졌다. 매일 창작이라는 고통에 시달린 그는 탈모, 면역력 저하, 폐렴을 진단받기도 했다. 오랜 직장생활 끝에 임 작가는 프리랜서로 전향했지만,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그는 현재 작가, 'URBAN LABS'의 문서수발실 실장, '전국빨간차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글쓰기를 미루지 않기 위해 출판사와의 미팅을 미리 잡아 기한을 계획하곤 한다.

작가로서 유명해진 그는 출강도 겸하고 있다. 처음 강연 자리를 제안받았을 당시에는 고민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기회라는 생각에 선뜻 나섰다. 임 작가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내 이야기가 타인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그는 여전히 주변을 관찰하며 선한 영향을 독자에게 남기고자 글을 쓴다. 아직도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작정 펜을 들고 본다. 자리에 앉아 생각만 하던 과거의 모습과 대비되는 발전이다.

"과거에는 고민이 많아 벼락치기로 글을 쓴 적이 많았어요. 이제는 완성에 가까워지기 위해 생각이 많아도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희망이 없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 말이에요."

김지윤 기자 jizhejy@naver.com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 : 우주선

'3, 2, 1 발사', 누리호가 웅장한 소리와 함께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향한다.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독자 개발한 우주선이다. 1957년 최초의 우주선이 발사된 후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4개국만이 우주선의 개발과 발사가 가능하다. 까마득한 저 우주 넘어서까지 몇백 톤에 육박하는 우주선은 어떻게 날아가는 걸까?

우주선을 움직이는 '과학의 힘'

우주선이 발사되면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된다.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란 뉴턴의 제3법칙으로, 물체의 가속도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는 개념이다. 즉,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질량이 가벼워지면 가속도가 증가한다는 말이다. 우주선은 2단 혹은 3단으로 구성된다. 각 단마다 일정량의 연료가 들어있는데, 연료를 다 쓴 순서대로 단의 분리가 진행된다. 단이 분리되면 우주선의 무게가 줄어들고 결국 추가적인 연료 없이도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우주선이 발사되는 순간에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된다. 작용·반작용의 법칙은 뉴턴의 제2법칙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가해진 힘만큼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양의 힘이 가해지는 원리다. 지면을 향해 분출하는 추진력만큼의 힘이 반대로 작용해, 우주선이 우주로 발사되는 것이다. 이때, 우주선의 무게와 중력을 모두 이길 정도의 힘을 얻으려면 약 7.5km/s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하다. 최기영(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총알의 속도도 약 0.75km/s인데 우주선은 그 10배가 넘는 속도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무게를 들어 올리며 추진력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엔진의 추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사진 제공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모든 우주선에는 화학 엔진이 사용되는데, 약 7.5km/s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엔진은 화학 엔진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화학 엔진은 화학물질을 추진제로 사용한다. 추진제는 '연료'와 연소를 도와주는 '산화제'로 구성되는데, 연료의 상태에 따라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으로 나뉜다.

우주선의 심장, '엔진'

우주선에는 화학 엔진 중에서도 액체 엔진이 많이 활용된다. 액체 엔진의 추진력이 고체 엔진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다. 최기영 교수는 "우주선별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가 존재하는데 최고 속도는 온도를 분자량으로 나눈 값에 비례한다. 분자량이 더 작은 액체 연료가 고체 연료에 비해 추진력과 최고 속도가 좋다"고 설명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은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한 추진 과정이 다르다. 두 엔진의 추진제 보관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인데, 연료와 산화제가 만나면서 연소를 일으키는 것이 추진의 원리다. 고체 엔진은 추진제가 담긴 탱크에서 곧바로 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엔진의 작동 방식이 단순하다. 시동을 걸면 점화기가 작동되면서 연소되는 추진제가 노즐로 분출돼 우주선이 발사되는 구조다.

액체 엔진은 연료와 산화제가 따로 보관되기 때문에 '터보펌프'가 연료와 산화제를 각각의 보관 탱크에서 연소실의 노즐까지 전달해야 한다. 터보 펌프는 시동기와 터빈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전에 의해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액체 엔진의 추진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노즐까지 도달할까?

시동부터 발사까지, '추진제'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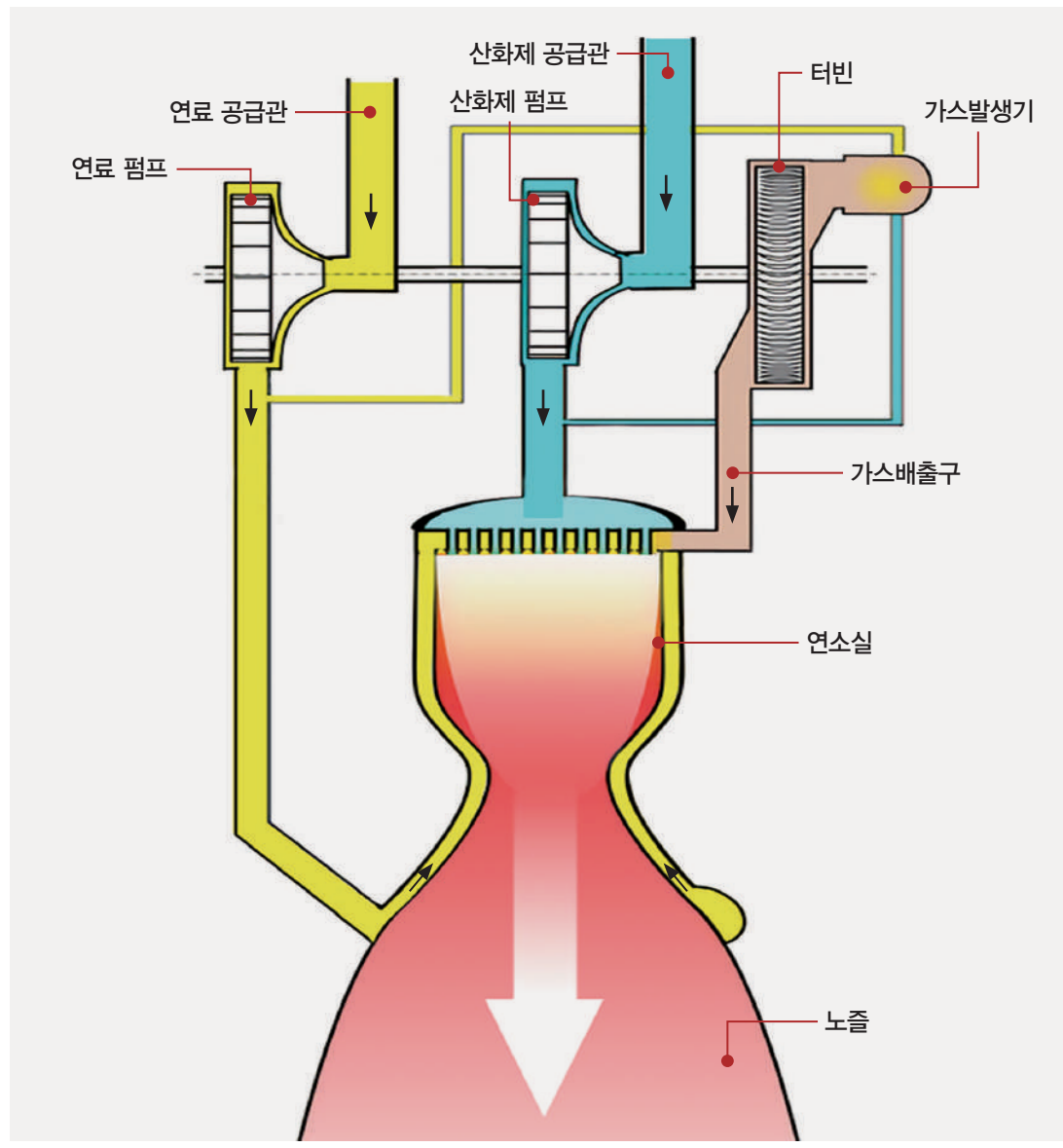
우주선의 추진은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 속 추진제가 각각의 공급관을 지나 연소실의 노즐까지 전달되는 과정이다. 연료와 산화제의 공급관은 연료의 터보펌프와 산화제의 터보펌프가 작동되면서 추진제를 공급한다. 시동을 걸면 터보펌프의 시동기가 작동되는데, 이때 시동기 내부에 들어있는 별도의 추진제가 연소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지속적인 압력에 고온·고압이 된 가스는 터빈을 움직인다. 유체의 흐름, 즉 가스의 흐름은 터빈을 회전시켜 에너지를 만들고 터보펌프를 작동시킨다.

터보펌프가 압력을 가하면 추진제는 가스발생기와 연소실로 이동한다. 대부분의 추진제는 연소실로 주입된다. 연소실의 상단에는 수백, 수천 개의 연료 분무구와 산화제 분무구가 박혀있고, 분무구를 통해 추진제가 잘게 부서진 상태로 방출된다. 이때 잘 섞인 추진제들이 연소되면서 고온·고압의 가스가 노즐로 분출되면 우주선이 발사되는 것이다.

한편, 가스발생기로 향한 추진제들이 연소되면서 가스발생기의 터빈이 돌아간다. 시동이 걸린 터빈은 펌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압력을 넣어준다. 또한 가스발생기에서는 불완전연소를 통해 터빈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불완전연소란 연료를 과잉 투입해 산소가 비교적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캄캄한 우주 속 '숨겨진 힘'

지구를 벗어날 때는 온전히 엔진의 힘으로 올라가지만, 우주에서 오랜 시간 비행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연료만으로 부족하다. 행성에 중력을 이용하는 '궤도운동'은



▲액체 엔진의 구조

이를 고려한 방안 중 하나다. 우주선 중 하나인 인공위성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연료 대신 궤도운동을 통해 비행한다. 우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일정한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원심력과 중력으로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천체가 공전하는 힘을 빌리는 '스윙바이'는 가속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스윙바이는 천체의 공전 반대방향으로 접근해 반 바퀴 동안 천체의 중력을 이용한다. 중력을 통해 가속력을 얻는 우주선은 천체의 공전 방향을 따라 나오며 속력을 얻는다. 반대 순서로 진행하면 속력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다. 정확한 각도로 접근하지 않으면 경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우주선의 접근 각도와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더 먼 '미래'를 향한 발걸음

우주로 나간 우주선에 이온 엔진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온 엔진은 지구의 중력을 이길만한 추진력을 내지 못해 우주에서만 사용된다. 현재 이온 엔진은 인공위성이 궤도를 유지하거나 방향을 조정할 때 이용되고 있다. 권세진(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이온 엔진은 약 20~250mN의 추력을 내는데, 지구의 중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반면 우주선 발사에 쓰이는 화학 엔진은 몇백 톤mN의 추력을 낼 수 있다.

이온 엔진을 사용하는 우주선은 이온의 자기력을 활용해 추진력을 얻는다. 이온 엔진의 연료는 제논, 아르곤 등의 원소다. 원소가 이온화 과정을 거치며 전하를 띄는 이온이 생긴다. 전하를 띄는 이온이 방출되고 이때 자석의 같은 극이 서로 밀어내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온화란, 중성의 분자 혹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게 되어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다.

지금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기술이 가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핵폭발을 이용하는 핵추진 엔진, 태양풍을 이용하는 솔라 세일, 특수 상대성 이론을 활용하는 헬리컬 엔진 등의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최정열(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다양한 방식의 엔진들은 새로운 물질의 등장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다. 기존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공학적 수단이 점차 실현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력 : 반동에 의하여 생기는 추진력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　　제 | 자유 주제
분　　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약 1,2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6매)
혜　　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학보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하여 hansungnews@gmail.com 으로 제출
*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학번/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입
문　　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신혜림 편집국장 010-8572-0334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삼 학 송

꽃을 피우기 위한 밑거름

최근 대학이 취업 준비의 연장선처럼 여겨지고 있다. 필자의 주위만 둘러보더라도 취업 걱정에 근심 가득한 친구가 많다. 졸업까지 시간이 꽤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심지어 후배 중에서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업 준비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의 영어 단어인 'university'의 라틴어 어원 'universitas'는 '전체 혹은 공동체'를 의미한다. 대학이 단지 학문을 갈고닦아 견문을 넓히는, 취업을 위한 학위 취득의 장소는 아니라는 증거다.

대학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공동체는 무엇일까. 바로 '학생자치'다. 학생자치는 어쩌면 대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휘청일 때마다 중심을 잡아줬던 집단은 대학생, 그리고 학생사회였다. 민주화운동부터 노동운동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여러 획을 그었던, 단단한 심지의 역할을 수행했던 학생사회가 위기를 맞았다.

이제는 너무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대학 내 학생자치가 무너져 가고 있음은 아직도 주목해야 할 대학사회의 큰 문제다. 자치란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다.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집단 활동으로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향상해 나가는 활동'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치를 '자주성을 보장받고 의사 표현의 자유, 자기 결정권 등을 통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실현하는 민주시민 활동'으로 정의한다. 학생자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학생의 목소리도 낼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고르자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뽑을 테다. 그런 서울대학교조차 2019년 말, 제61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내일'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연석회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도 사퇴로 총학이 공석이었던 경우는 있었지만,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된 일은 사상 최초였다. 그 후 4번의 재선거 역시 무산되고 현재 '제62대 총학생회 5차 재선거'가 진행 중이다.

학생자치의 씨가 마르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엔 단비가 내리고 있다. '제37대 총학생회 선거'에 '근본', 'BASE', '성심' 등 무려 3개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후보로 출마했다. 2년 연속 단선으로 치러졌던 총학 선거는 3년 만에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선거 역시 '공감', '시너지', '단비' 등 3개 선본이 경선을 이룬 바 있다.

좋은 징조임은 분명하다. 각각의 선본은 서로 견제하며 너나 할 것 없이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자연히 학생을 위한,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심도 있는 고민도 이어질 테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태도다. 학생자치기구, 특히 총학생회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다. 일반 학생들이 이들에게 무심하다면 단비가 내린들 새싹을 피울 수 없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그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지,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학생의 관심을 양분 삼아 새싹이 건강히 피어나길 고대한다. 우리 학교에 만개할 진정한 학생자치의 꽃을 기다리면서.

신혜림 편집국장

의화정

『로마인 이야기』에서 배우는 지혜

한성대학교는 접근성이 높은 캠퍼스, 실력 있고 열정적인 교수진, 친절하고 헌신적인 직원, 공감 능력과 학습 역량을 갖춘 우수한 학생 등 참 많은 장점과 가능성을 가진 대학교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동급 대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시설이 바로 학술정보관이다.

이는 그동안 본교의 학술정보관이 수상했던 각종 수상 실적이 입증해준다.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똑같은 학사 시스템에서 똑같은 교수님들에게 배우지만, 단언하건대 4년 내내 학술정보관을 제 집 드나들다시피 한 학생과 4년간 단 하루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인생경로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학술정보관이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축적된 지식의 보고요, 인류 최고의 스승들을 만날 수 있는 학당이다.

학술정보관 1층의 정중앙에는 신입생들에게 추천하는 명저들을 모아놓은 서가가 있다. 졸업하기까지 이 책들을 다 읽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보기 바란다. 그렇다면 어떤 책부터 시작할까? 무릇 고전이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는 않는 책'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문턱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재미도 있으면서 사유의 지평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책이면 딱 좋을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떠오르는 책이 바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이야기』이다. 시리즈를 완독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지만, 본인의 관심을 끄는 부분을 골라 읽어도 그만이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저자에 따르면, 로마 문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로마식 가도'이다. 동시대의 또 다른 제국인 '중국'이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만리장성'을 쌓고 있을 때, 로마는 이민족과 교류하기 위한 '로마식 가도'를 닦고 있었다는 것이 두 제국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다.

로마식 가도야말로 로마 특유의 '관용', '개방성', '패자까지도 자신과 동화시키는 포용력'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과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서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로마식 개방성과 포용력이 아닐까 싶다.

카르타고의 전설적 명장인 한니발과 공화국의 운명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출전한 로마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맞붙는 2차 포에니 전쟁의 '자마 회전'의 현장(『로마인 이야기』 2권)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신영헌(기초교양학부) 교수

김 기자의 시선

평등한 세상을 위한 행진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시민 활동가들은 지난 10월 12일 부산시청에서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난 11월 10일, 도보행진단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해서야 행진이 마무리됐다. 차별금지법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이 · 성별 · 장애 ·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지난 2007년부터 15년째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진정한 평등을 위한 출발점이다. 빠른 시일 내에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도래하길 기대한다.

김기현 기자

기자수첩

흐트러진 자유의 의미

텔레비전에서 보던 유명 연예인의 유튜브 출연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의 방송국 프로그램 출연은 더 이상 신기한 상황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증가함에 따라 산업 규모 역시 커졌기 때문이다. 2019년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발표한 '1인 미디어 시장 규모' 통계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2018년 3.87조원에서 2019년 4.47조원까지 성장했다. 2023년에는 그 규모가 약 8조원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1인 미디어 콘텐츠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의 플랫폼을 통한 녹화 영상과 생방송을 의미한다. 방송국 프로그램에 비해 제약이 적어 자유로운 표현과 다양한 콘텐츠를 구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제약 없는 자유'는 일부 특정인에 대한 비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물론 처벌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론화된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실추된 이미지 역시 회복하기 어렵다. 1인 미디어 콘텐츠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자유'라는 장점은 무질서한 영상이 흘러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콘텐츠와 생산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 9월 29일 구성된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에도 규제의 필요성이 반영됐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방송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1인 미디어 관련 규제도 정보통신망법으로 분류돼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1인 미디어 콘텐츠가 기성 언론과 방송국만큼이나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생산자의 '책임' 역시 중요해졌다.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릇된 일부의 행위로 1인 미디어 자체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는 바로 잡을 때다.

이준혁 기자

낙산에 올라

영상의 노예

디지털화된 시대에서, MZ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즐겨 찾는 매체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다. 주변 친구들만 둘러봐도 유튜브의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 틱톡 영상 등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SNS 속 동영상은 단시간 내에 다수의 시청자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현란한 소재가 활용된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 계속해서 노출돼 있다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

신종호(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한 토크쇼 프로그램을 통해 "요즘 젊은이들은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문해력(文解力)이란 단순하게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일컫지만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의 의미도 포함한다. 즉, 자신이 읽은 것을 다른 것에 활용시키는 능력,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정보를 연결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능력이 문해력이다. 신 교수는 현세대의 젊은이들이 짧은 영상을 시청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문해력 저하의 원인으로 꼽았다.

영상은 여러 정보를 모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대부분의 영상은 제작자의 의도대로 정보가 구성돼 시청자는 주관적인 해석이나 감상이 아니라, 의도된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 영상 매체를 즐겨보는 학생은 스스로 정보를 구별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휴대전화 속 가상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간단한 인증만으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에게 보고서 작성, 구두 보고 등의 글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력만을 요구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문해력은 중요시되는 능력이고 한편으로는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영상이나 만화와 같은 짤막한 콘텐츠를 접하기보다는 책과 신문기사를 통해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 콘텐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영상의 노예가 되지는 말자. 수많은 미디어 매체가 난무하는 사회에서도 문해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습관을 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소희(IT 1)

기자사령

임

부장기자 김기현(인문1)
한혜정(사회과학1)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 창 원 **편집인겸주간** 박 선 옥 **편집국장** 신 혜 림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청년이 묻고 현장이 답하다

나 말고 다른 사람. 그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묻는 것보다 그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던가. 종이에 적힌 자료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현실적이다. 나를 그로 바꾸기 위해 신문사 밖으로 향한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생생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매년 우리 학교를 찾아오던 헌혈 버스는 사라진 지 오래고 헌혈의 집을 찾는 사람들 역시 뜸해졌다. 병원은 비상에 걸렸고 보호자들은 지정 헌혈자를 모으기 위해 애를 쓰곤 한다. 헌혈의 집과 혈액원의 상황은 어떨까? 보다 정확한 상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김지윤 기자 jizhejy@naver.com
김기현 기자 kimgihun30@gmail.com

코로나19가 남긴 헌혈의 빈자리

#발길 끊긴 헌혈의 집

성신여대입구역에 위치한 헌혈의 집을 방문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QR코드 인증과 발열 체크를 마친 후 대기실에 앉자 적막이 감돈다. 헌혈 전 필수인 전자문진과 혈액검사를 하기 위해 문진실과 검사실로 들어간다. 지나가는 복도 그 어디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이전, 사람이 많을 때는 문진실과 검사실이 부족했었지만, 이제는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

'따끔합니다'라는 간호사의 말과 함께 주삿바늘이 손가락 끝을 찌른다. 간호사는 손가락에서 나온 피를 두 개의 종이에 한 방울씩 떨어트린다. 1분 정도 기다리자. 간호사가 설명한다. "밖에 나가서 냉장고에 있는 이온음료 마셔주세요. 꼭 한 캔 다 마셔야 합니다."

헌혈을 하면 체내에서 400mL가량의 혈액이 빠져나간다. 혈액과 함께 빠져나간 수분을 다시 채우기 위해 이온 음료 섭취는 필수다. 이온 음료를 마시는 와중에 간호사가 말을 건넨다. "헌혈자가 줄어들면서 이온 음료 주문 횟수가 3분의 1 꼴로 줄었어요."

채혈실에 들어서니 7개의 침대가 보인다. 한 명의 헌혈자 외엔 6개의 침대가 텅 비어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침대가 모두 차고 대기자도 있었어요. 지금은 헌혈자가 많이 줄었죠." 간호사의 안내를 받은 뒤 침대에 올라간다. 간호사는 소매를 걷어 준 뒤 양팔을 살핀다. 오른쪽 팔을 소독약이 묻은 솜으로 꼼꼼히 소독해준다. 바늘을 넣으니 벌이 쏘인 듯 따끔하면서 팔 전체에 힘이 풀린다.

채혈 바늘을 꽂은 채 약 15분이 흐른 뒤, 타이머의 울림과 동시에 간호사가 찾아온다. 그녀는 주삿바늘을 뺀 후, 채혈한 곳을 압박붕대로 감기 시작한다. "10분간 압박해주세요." 10분이 지나고 침대에서 일어난다.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사물함에서 가방과 옷을 꺼내 헌혈의 집을 나온다. 헌혈을 모두 마치기까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됐지만, 그동안 헌혈의 집에 방문한 사람은 3명뿐이다.

▲헌혈을 하고 있는 기자의 주변 침대가 텅 비어있다.

#의미 사라진 캠페인

헌혈자가 감소함에 따라 헌혈 캠페인 참여자도 줄었다. 헌혈 캠페인은 리플렛 배부나 피켓 홍보를 활용해 사람들의 헌혈 참여를 도모하는 활동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거리에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홍보 효과가 현저히 감소했다. 헌혈의 집에서 팻말과 허리띠를 받아 건물 밖으로 나온다. 헌혈의 집 건물 앞에 팻말을 들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린다. 30분이 지났지만, 건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성신여대입구역 번화가로 장소를 옮겨 헌혈캠페인을 진행한다.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곳에서 캠페인을 하면 헌혈 홍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큰 오산이었다. 행인 모두 '우리 함께 헌혈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무시한 채 그냥 지나간다. 성신여대 길 한복판에서 1시간 동안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팻말을 보고 헌혈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기자가 팻말을 들고 헌혈 캠페인에 참여 중이다.

캠페인을 마친 뒤 헌혈의 집으로 올라간다. 헌혈의 집의 간호사는 수고했다는 인사와 함께 말을 건넨다. "혈액이 없어 큰일이에요. 한 명의 헌혈자가 무려 5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데 말이죠."

우려했던 것처럼 사람이 없는 헌혈의 집 상황에,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혈액 보유현황'을

> 혈액이 부족해
> 모든 직원이
> 헌혈에 나섰어요

▲혈액 냉장고에는 소량의 지정혈액만 보관돼 있다.

살펴보기로 했다. 화면 속의 표에는 '자정 기준 전체 혈액 보유량, 2.6일분'으로 나와 있다.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일 경우,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응급수술을 제외한 일반수술은 혈액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연기된다.

심지어 보유한 모든 혈액이 환자에게 공급되는 것도 아니다. 혈액 보유량은 환자에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급 가능한 재고'와 '검사 대기 혈액 재고'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검사 대기 혈액 재고'는 혈액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야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다. 실제로 공급되는 혈액은 명시된 개수보다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텅 비어버린 혈액원

중계역 5번 출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이하 혈액원)으로 향한다. 혈액원은 헌혈자들의 혈액을 보관하는 곳이다. 입구에서 담당자를 만나 함께 혈액 관리실로 이동한다. 관리실 한쪽에는 커다란 냉장고가 놓여있다. 냉장고를 열자 '지정혈액'이라고 적힌 맨 위 칸을 제외한 5칸이 모두 비어있다. 지정혈액은 대상을 미리 지정한 후 헌혈한 혈액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희귀한 RH- 혈액형만 지정헌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혈액이 부족해서 A형, B형, O형, AB형의 일반 혈액도 지정헌혈인 경우가 많다. "지정헌혈 참여자가 많은 건 심각한 문제에요. 간단한 수술조차 지인에게 혈액을 부탁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옆방에 있는 냉장 창고로 향한다.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박스 하나를 제외하고는 선반이 텅텅 비어 있다. "예전에는 혈액 창고가 혈액으로 가득해 이곳에서 재고를 정리했지만, 지금은 창고에서 바쁘게 근무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관리실 앞 복도로 나오니 상자들이 쌓여있다. 병원으로 보낼 혈액이 담겨있는 혈액 운송 상자다. 상자 옆에는 건국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등 여러 대학 병원의 이름이 적혀있다. 혈액 운송 기사가 혈액을 지정된 병원으로 배달하기 위해 혈액 운송 상자를 여기저기 옮기는 모습이 보인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혈액 운송 상자가 복도를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복도가 텅 비어 있어요."

복도 한쪽에는 컴퓨터가 설치돼 있다. 모니터에는 '10월 8일 13시 기준 2.3일분'이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당일 혈액 보유량이다. 그중 O형의 혈액은 고작 8개뿐이다. 관리자가 컴퓨터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쉰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이에요."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자 관리자가 전화를 받는다. 혈액이 급히 필요한 병원 관계자의 연락이다. 관리자는 컴퓨터 마우스 스크롤을 빠르게 움직인다. 약 2분 정도 찾아본 결과, 관리자가 고개를 떨굼과 동시에 병원 관계자에게 '혈액이 없다'고 전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병원에서 혈액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오면 다른 혈액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요즘은 전국적으로 헌혈자가 줄어 모든 혈액원에 혈액이 없어요."